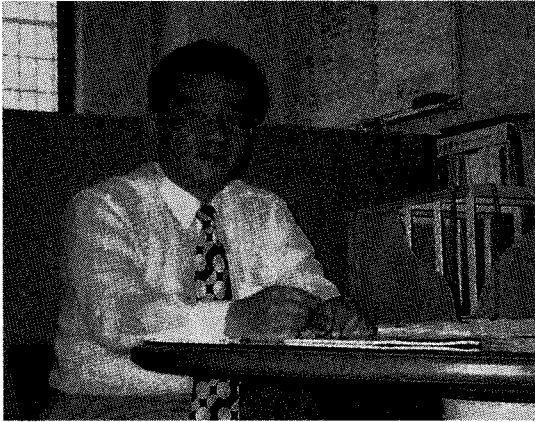


인테크포장

늘 변화되는 포장으로 고객만족 추구 포장시양서 제작 등 경영의 묘미 돋보여



▲ 인테크포장 이상재 사장

나무상자는 오래 전부터 중량물포장의 대표적인 위치를 고수해 왔다. 과일·채소류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골판지박스의 등장과 사용이 보편화되고 보다 나은 품질의, 보다 강도가 우수한 골판지의 출현은 나무상자 시장을 더욱 잠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는 그 용도가 주로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 녹이 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수출이나 공장이전, 제품의 이동시 적용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로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주력하고 있어 IMF 시대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영세한 업체들의 특성상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경향이 짙어 기술의 진보가 더뎠고 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업체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고수되고 있다.

수출포장은 녹이 스는 제품의 보관을 위해 방청필름을 사용하고, 파손 방지를 위해 완충재를 적용, 최종적으로 나무상자로 포장하는 종합포장이다. 또한 수출되는 대상국의 온습도, 관련법, 운송방법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96년 2월 수출포장 전문업체로 설립된 인테크포장은 신생기업이지만 11년간의 업체 경력을 소유한 이상재 사장의 기술노하우가 최근 유저들에게 강하게 어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적잖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동종업체들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일을 진행하여 고객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사장은 인테크포장을 소개했다.

83년 가구회사에 입사, 나무라는 공통점 때문에 목상자와 인연을 맺게 되어 모 수출포장업체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며 많은 수출포장을 개발했다.

대우전자(주) 중국향 냉장고 PLANT 작업, 쌍용자동차(주) A/S부품포장, 우성기계 CONVEYOR LINE포장, (주)대우 건설기자재포장, 한국해양연구소 남극실험기자재 포장, LG산전(주) 자동화창고기기 포장, 새한미디어(주) 멕시코향 PLANT포장, 삼익약기(주) 인도네시아향 PLANT포장 외에도 대우전자(주) 해외공사용 PLANT포장, (주)보인메디카 카자흐

스탄향 MEDICAL PLANT포장, 삼성전자(주) 압연 PLANT포장, 삼성항공(주) 독일향 PLANT포장, 영창악기제조(주) 중국향 PIANO 생산설비 포장, 삼성항공(주) 말레이시아향 PLANT포장 등 이 사장은 그간 다양한 수출포장을 개발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인테크포장은 영업관리와 기술관리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 수출포장업체로서 물류 및 포장 컨설팅과 포장설계, 포장교육 및 출장강의, 포장사양서 작성 및 포장품질검사 대행, 각종 검사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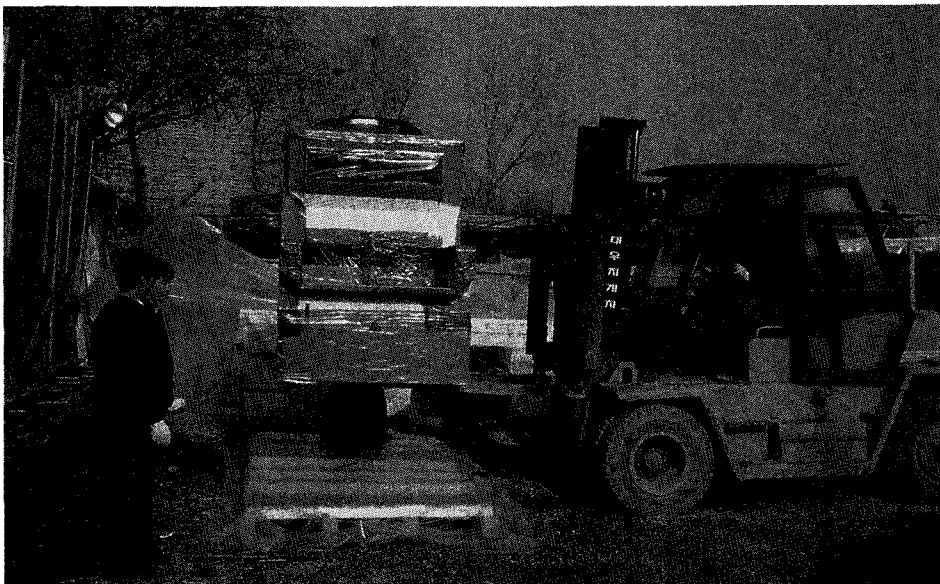
수출포장 중에서도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산업설비 기계류와 PLANT구조물, 각종 원부자재 내수 및 수출상품과 기기·시험장비·검사장비·공구 등이다.

“국내에서는 화주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출포장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아 만족할만한 포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포장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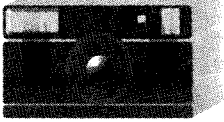
기획되어야 이상적이라는 이 사장은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을 일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다 나은 상태로 수정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장점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인테크포장 설립 후 바쁘게만 뛰어다녔을 뿐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겸연쩍어하는 이 사장은 지난해 영화OTS제조(주) 반도체장비 수출포장 연간 계약을 체결했고, 삼익악기(주) 인도네시아 및 중국향 수출포장 연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자동차 A/S부품포장 스펙개발 완료, 쌍용자동차(주) MUSSO SKP 스펙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희가 제작한 사양서는 각종 설비, 기기, 구조물, 재료 등을 수송, 하역, 보관함에 있어 그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포장업체가 준수해야할 포장사양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포장업체가 KS규격에 의거하여 포장설계를 진행하고, 제품의 정도 및 특수성, 국내 및 국외에서의 수



◀ 작업을 진행중인 공장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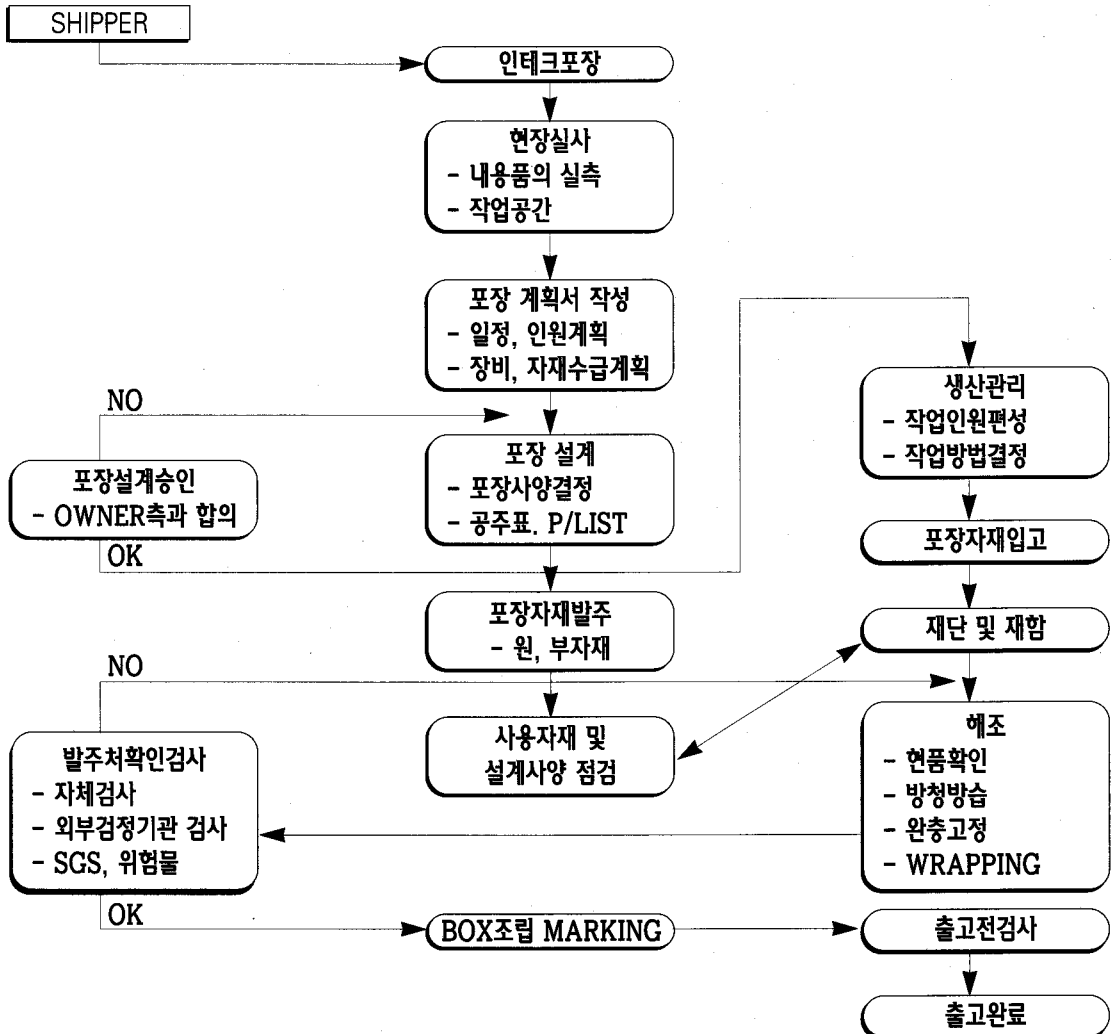
인테크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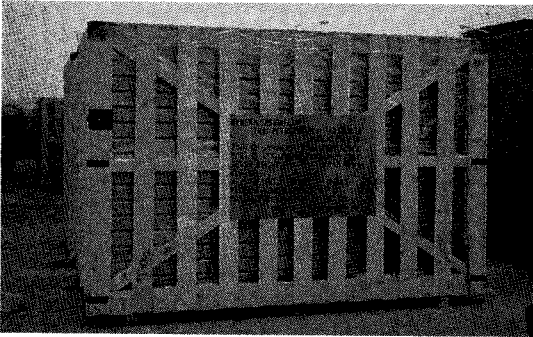
송, 하역, 보관의 안전화율, 창고, 야적장 및 선박내에서의 상부하중, 수송 및 하역시의 충격하중(특히 수평방향의 충격), 내용물의 탈락, 변형, 무너짐, 고온 빗물, 결로 등에 의한 품질열화, 발송, 현지의 기상조건, 보관기간, 독일화물의 포장사양을 통일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여 내용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포장이 될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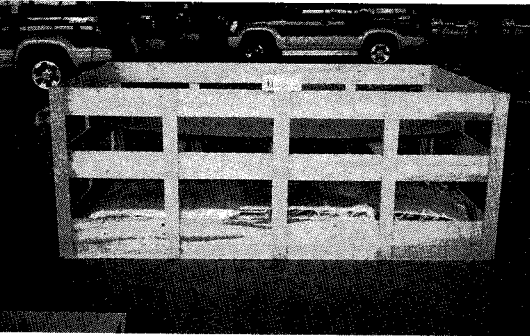
또한 이 사장은 수출포장시 제품의 내부에 녹이 슬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방청포장을 하고 있는데 방청포장은 물품이 출하되어 납입 후 보관사용될 때까지, 수송 중 또는 보관 중에 외적인 장애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의한 물품의 열화를 막기 위해 실시 하는 것이나 아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청포장재의 효

[표] 인테크포장의 작업과정





▲ 오픈형 수출용 목상자



▲ 자동차 부품용 목상자



▲ 밀폐형 수출용 목상자

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어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요즈음 업계의 요청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장관리사 교육과정에서 수출포장분야를 강

의하고 있으며 포장기술개발 지도위원으로 업체의 진단 및 지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가르치는 경험은 처음이지만 보람을 느끼며 상세하고 전문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포장담당자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을 위주로 강의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관심을 보여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이 사장은 밝히며 자신도 처음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자 할 때 막상 전문서적이나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점을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포장, 한단계 발전하는 포장 추구를 기업의 생명으로 품고 연구하고 있는 이 사장은 이 분야는 하면 할수록 흥미롭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기계를 공부해 기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 겉포장을 하는데 유리한 면이 없지 않다는 이 사장은 내용물을 알아야 제대로 된 포장을 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펴기도 했다.

사회전반적으로 구조면에서 대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포장산업계도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새로운 개발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욕과 노력으로 일어서고 있는 신생 기업들의 화이팅으로 우리산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았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 우리 수출포장도 더불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는 이 사장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그려졌다. ☐

이선하 기자